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사는가¹⁾ - 2

전쟁과 종교 -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어쨌든 유대인은 고향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이때까지 유대인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자신들의 후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전혀 몰랐다. 게다가 또 다른 예언자 -무함마드-가 등장하여 훗날 예루살렘의 역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리라는 결코 알 수 없었다. 근대 이후, 현대에 들어와 석유의 중요성 부각으로 중동 정세의 복잡함이 심화되는 것까지는 다루지 않겠다. 고대 후기와 중세, 근세에 예루살렘을 놓고 벌인 쟁투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종교와 민족문제까지 겹쳐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로마제국에 게르만족이 물밀 듯 들어오고 제국은 이미 쇠퇴하고 있

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지금의 이스탄불에 콘스탄티노폴리스(콘스탄티노플)를 건설하여 330년 개도식을 갖는다. 이때 사실상 동로마제국(혹은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와 별개의 길을 걷는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이르러 제국의 분리는 확고해진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리 등은 기독교의 성지가 되어 많은 교회와 수도원이 세워진다.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만큼 '결정적 순간'(defining moment)을 많이 겪은 도시가 있을까? 나사렛 출신의 목수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이임을 자처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복음을 전했다. 예수의 활동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자 유대의 사제들과 바리새이 파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 예수의 존재가 방해된다고 판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열한 명의 예수의 공인된 제자들(원래 12제자였는데 예수를 배신한 유다는 자살했다) 외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었고, 이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위시하여 점점 많아져 갔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훗날 예수가 재림할 것이라 확신하며 예수를 메시아로, 인간의 죄를 대속한 신의 아들로 믿었다. 그리스도의 성립이다. 기독교도들 입장에서 유대인은 예수를 죽게 만든 자



들에 불과했다. 이 생각은 중세와 근대, 그리고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에 이르기까지 유럽인의 유대인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대금업을 금지한 가톨릭교회의 교리 때문에 유대인은 종든 싫든 생계의 방편으로 그 일을 맡았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샤일록은 유럽인의 망팔리떼에 박힌 유대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구두쇠, 잔인하고 교활한 이미지, 돈만 밝히는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의 이미지가 유럽인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모습이었다. 유대인은 히틀러와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 여기에는 오랜 세월 축적된 유럽인-기독교도와 유대인-유대교도의 갈등도 작용했을 것이고, 그 보상심리, 반대급부의 일환으로도 미국과 유럽은 이스라엘 건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예루살렘을 둘러싼 정치적·외교적 지형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함마드의 출생은 예루살렘의 또 하나의 '결정적 순간'이다. 570년 4월 22일에 무함마드는 메카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할거한 꾸라이쉬 부족의 하심 가에서 태어났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녀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다. 우리가 아랍민족과 유대민족 간, 이슬람교와 유대교 간에 역사적 친연성이 있다고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²⁾ 무함마드가 히라 동굴에서 명상정진한 지 15년째 되는 610년 어느 날 밤 그는 계시를 받는다. 무함마드는 사망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히즈라)한 무함마드는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어 630년에 메카에 무함입성한 다.³⁾ 무함마드의 종교적 체험 중에는 예루살렘에서의 승천과 기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러나 '마지막 예언자'를 자처하는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대인은 예언자들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믿었고 메시아를 기다릴 뿐이었다(유대인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⁴⁾ 오늘날 유대인과 무슬림인 아랍인, 비아랍인의 갈등의 시작이다. 어쨌든 예루살렘도 메카만큼은 아니지만 이슬람교의 중요한 성지로 자리 잡았고, 이후 세력을 확장한 이슬람 세력은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세 종교의 갈등의 원인을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다. 유대교는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로 이슬람교와 대립한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로 기독교와 대립한다. 이슬람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만 간주하여 기독교와 대립한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갈등요소가 있겠지만, 이슬람교의 핵심인물인 무함마드와 기독교 교리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견해는 세 종교의 공존을 쉽지 않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중세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예루살렘 점령사는 다음과 같다.

638년 아랍의 이슬람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나, 그들은 기독교의 성지를 존중하였다. 동시에 이슬람 사원이 솔로몬의 성전 터에 세워졌다. 1099년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슬람교도와 유대인을 무차별 학살하고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다. 1187년 이집트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였다. 1260년 훌라구의 몽골군이 예루살렘 근방까지 육박했으나 바이바르스가 이들을 몰아냄으로써 맘루크 왕조의 성지 관할권이 확립되었다. 1516년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400년 내내 지배하였다.⁵⁾



1) 이 글의 제목은 유현준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2) 정수일 지음 『이슬람 문명』 65쪽

3) 전계서 75~76쪽

4)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77619

5) ko.wikipedia.org/wiki/%EC%98%88%EB%A3%A8%EC%82%B4%EB%A0%98

여기서 십자군전쟁만큼은 짚고 넘어가자. 현대적 관점에서 십자군 전쟁의 동기를 분석하면 서유럽의 팽창 욕구, 교황의 권한 확대 시도 등을 언급할 수 있으나, 당시 서유럽인의 망팔리떼를 들춰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면서 자기 영속적인 의미의 고리를 만든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상호 확증을 거듭하며 의미의 그물망을 팽팽하게 만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의 그물망이 풀리고 새로운 그물망이 만들어진다고 한다.⁶⁾ 계속해서 유발 하라리가 가상으로 설정한 십자군 원정기사 존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존의 가장 어릴 적 기억은 저택의 중앙홀에 걸려 있던 할아버지 헨리의 녹슨 검이었다. 걸음마를 시작한 이래로 존은 제2차 십자군 원정에서 전사해 지금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존과 그의 가족을 지켜보고 있는 할아버지 헨리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음유시인들도 그의 저택을 방문해 늘 성지에서 싸운 용감한 십자군 전사들에 대해 노래했다. 존은 교회에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보는 것이 좋았다. 그 창문들 가운데 하나에는 말을 탄 채 사악하게 생긴 이슬람 교도를 창으로 찌르는 고트프루아드 부용이 그려져 있었다. 또 존은 자신이 아는 가장 박식한 사람인 마을 신부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존이 18세가 되던 해의 어느 날, 흐트러진 차림새의 기사 한 명이 대저택의 대문 앞에 달려와 갈라지는 목소리로 비보를 전했다. 살라딘이 하틴에서 십자군을 무찔렀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교황은 새로운 십자군 원정을 선포했고, 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약속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과 근심이 어렸지만, 존은 세속을 초월한 듯 빛나는 얼굴로 이렇게 선언했다. “이교도들과 싸워 성지를 해방시키기 위해 원정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웃음과 눈물을 보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존을 포옹하고는 그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힘차게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네 나이였다면 나도 갔을 것이다. 우리 가문의 명예가 네 어깨에 걸려 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친구 두 명이 자신들도 가겠다고 선언했다.⁷⁾

물론 반대편인 이슬람 전사도 존만큼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

었을 것이다. 유대인이 추방당한 예루살렘은 이처럼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어 각축장으로 변했다. 물론 종교적인 열정 외에 세속적인 욕망이 혼재되어 예루살렘에서의 갈등은 복잡해졌고, 이어서 기술할 20세기에는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된다.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과 예루살렘,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 건국을 가져온 시온주의(Zionism)가 싹튼 것은 공공로게도 프랑스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은 드레퓔스 사건의 폭풍우 속에서였다. 1896년 드레퓔스를 비난하는 프랑스 군중의 반유대주의 폭동에 놀란 유대인 언론인 테오도르 헤르즐은 『유대국가』라는 책에서 자신이 유대 민족주의자로 전향했음을 고백하면서, 유럽의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하려면 자기들끼리 따로 떨어져 나와 순수 유대국가를 세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전에도 이 같은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헤르즐의 책은 시온주의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⁸⁾ 실제로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교통로가 확보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는 유대인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영국은 1915년 10월, 아랍인이 전쟁에 협력할 경우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을 아랍인에게 넘겨주겠다는 ‘맥마흔 서한’을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터키의 억압에 분노를 느끼고 있던 ‘메카의 수호자’ 후세인은 1916년 6월 5일에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아랍민족의 왕이 되었다.⁹⁾ 여기서 우리는 19세기부터 불어 닥친 민족주의 열풍을 이해해야 한다. 같은 이슬람교를 믿더라도 혈통적으로 아랍인인지 터키인인지 페르시아(이란)인인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유대인의 민족주의인 시오니즘 반대편에서 아랍인의 민족주의도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영국 외상 발포어는 1917년 미국 유대인의 협력을 얻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팔레스타인에 유대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지지하는 ‘발포어 선언’을 발표했다. 이로써 시온주의와 아랍 민족주의 사이에 던져진 불씨는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열강은 전쟁이 끝난 뒤 다시 한 번 아랍민족을 배신했다. 통일 아랍국가를 세우려는 아랍 민족주의자들의 열망과는 달리, 시리아와 레바논을 분리하여 이 두 나라는 프랑스가 신탁통치하고,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신탁통치하기로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것이다. 이렇

6) 유발 하라리 저 『호모 데우스』 207쪽

7) 전계서 208~209쪽에서 요약

8) 유시민 저 『거꾸로 읽는 세계사』 225쪽

9) 전계서 228쪽

게 해서 연합국은 터키가 지배했던 아랍 지역을 무려 20여 개의 식민지로 분할 점령하고 말았다. 영국은 발포어 선언을 이행하려 했다. 그러자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반시온주의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영국군의 비호를 받으며 이민을 계속한 유대인들은 1930년대 히틀러의 박해가 시작되자 홍수처럼 밀려들어 1936년에는 총인구 150만 가운데 28%인 43만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팔레

스타인 문제는 국제연합에 회부되었으나 팔레스타인은 분쟁지역이 되었고, 1948년 5월 15일, 영국군은 마침내 골치 아픈 땅 팔레스타인을 버리고 철수했다. 그리고 같은 날 시온주의 지도자 벤 구리온은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했다.¹⁰⁾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의 1차 중동전쟁을 비롯하여 1973년의 제4차 중동전쟁까지 치르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무력으로 관철시키려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레바논과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에서 알 수 있듯 아랍국가들에 대한 강경기조는 후퇴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은 현재에도 이스라엘의 정치적 기조를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예루살렘은 동예루살렘(요르단령)과 서예루살렘(이스라엘령)으로 분리되었다. 1967년 6월 제3차 중동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전체를 인위적으로 점령하였다. 1980년 7월 30일 이스라엘 국회는 예루살렘 전체를 '분리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규정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관한 기본법》을 통과시켰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980년 8월 20일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모든 회원국들의 외교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과 대표부는 예루살렘 대신 텔아비브에 있다.¹¹⁾

그러면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지도로 살펴보고, 2017년 12월 6일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루살렘에 대한 기존의 대체적인 국제사회의 합의는 2개 국가 체제이다. 아세르 아라파트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1993년의 오슬로협정으로 199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이후 강경파인 하마스의 대두로 가자지구는 총선에서 승리한 하마스가 다스리고, 파타(Fatah)의 마흐무드 압바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으로 서안지구를 다스리고 있다. 수차례 반복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은 예루살렘에 대한 2개 국가 체제에 대한 폐기를 의미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미래의 수도로 고려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분쟁연표¹²⁾



10) 전계서 228쪽

11) ko.wikipedia.org/wiki/%EC%98%88%EB%A3%A8%EC%82%B4%EB%A0%98

12) news.joins.com/article/22283777

있는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우경화로 인해 이스라엘의 양보(팔레스타인국의 수도로 인정)를 얻어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는데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방침을 지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예루살렘 1개 국가 체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만약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기존 이스라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며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선언은 독립국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일종의 분열정책일 수 있다. 즉 팔레스타인 주민 내에서도 이스라엘 국민이 되자는 쪽과 독립국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라지는 것이다. 중동지역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선언을 지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예루살렘의 최종 지위는 중동 평화과정을 통해 원만한 타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쟁점사항”, “발표 내용이 가지는 함의와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동국가들과의 관계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이면에는 트럼프가 미국 내의 복음주의자들과 유대인 등의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국내용인 측면도 있고, 오랜 분열과 IS 등으로 지지부진한 중동의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외교적 의도도 있다.

예루살렘의 미래 -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사이에서

유대인은 클래식음악, 특히 바이올린 연주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피아노가 유럽 부르주아의 악기라면 비교적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바이올린은 가난한 유대인에게도 허락된 악기였다. 나탄 밀스타인, 에프렘 짐발리스트, 미샤 엘먼, 야샤 하이페츠 등 19세기와 20세기에 활동했던 독보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빼놓고 현대 바이올린 음악을 논할 수는 없다. 아이작 스테인과 이츠하크 펄만, 핀커스 주커만도 유명하다. 1967년의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이던 아이작 스테인 핀커스 주커만에게 유리하게 대회를 진행하여 정경화와 공동우승하게 만들었다는 일화는 음악계에서 ‘유대인 마피아’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유대인 바이올리니스트 브로니스와프 후베르만의 후원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이다. 1936년 창단 당시에는 팔레스티나 교향악단이었는데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개명했다. 창단연주회에서 토스카니니가 지휘한 이래 바인가르트너·쿠세비츠키·미트로폴로스·윈슈·마르케비치·오먼디·솔티·번스타인 같은 유명 지휘자들이 이 악단을 지휘했다. 주빈 메타는 이스라엘 필하모닉에 큰 애착을 가지고 참여한 지휘자로 유명하다. 이스라엘 필하모닉은 유대계 연

The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s 70th Anniversary / 출처 : wikimedia commons





주자로 구성된 만큼 현 파트에서 수준 높은 연주력을 보여주며 세계 일류 관현악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이들의 연주를 감상하다 보면 남자 단원 중 몇몇이 유대인 전통의 조그만 빵모자인 키파를 쓴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나는 사소해 보이는 이 풍경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의 정체성을 생각한다. 유대인 중에는 여전히 타민족과의 공존보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시온주의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필하모닉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West-Eastern Divan Orchestra)의 존재에도 주목해야 한다. 서동시집은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중세 페르시아의 시인인 하피스의 시편을 창조적으로 수용한 걸작인 『서동시집』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오케스트라는 1999년 아르헨티나 출생의 유대인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바렌보임과 팔레스타인 출신의 영문학자이자 문화비평가인 에드워드 사이드(오리엔탈리즘으로 유명한 그 사이드 맞다)가 의기투합해 결성하였다.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공존 공영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의 갈등을 종식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만든 악단이다. 그런 만큼 연주자도 유대계와 아랍계 비율을 반반으로 하고, 식당과 휴게실 숙소 및 연습실 사용에 있어서도 함께하여 음악 외적으로도 상호 이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는 극우 유대인과 이런저런 정치세력의 반대 에 부딪혀 팔레스타인의 임시수도인 라말라에서의 공연이 취소되는 등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인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와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이스라엘 필하모닉의 연주력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이스라엘 필하모닉의 모든 단원이 시온주의자도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두 오케스트라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두 가지 미래를 압축적·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니 살아야 하는가? 서동시집 오케스트라가 예루살렘에서 연주하고 이스라엘 필하모닉이 라말라에서 연주할 수는 없을 까. 괴테의 『서동시집』에서 시편 한 편을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현재 속의 과거

아침 이슬 머금은 장미와 백합은
가까이 정원에서 피어나고
그 뒤로 관목에 덮인 바위가
슬픈 모습으로 높이 솟아 있다.
높은 숲이 둘러싸고
기사(騎士)의 성이 왕관처럼 얹혀 있는
산봉우리 능선을 타고 내려
골짜기와 화해를 한다.

그곳은 예전처럼 향기롭다.
우리가 사랑에 괴로워하던 시절
그리고 나의 찬송가를 타던 현(弦)이
아침 햇살과 닮았던 그때
관목 숲으로부터 사냥의 노래가
가득히 울려 퍼져
가슴이 원하고 필요한 만큼
고무시키고 생기를 북돋우던 곳.

이제 숲들은 영원히 태어났으니
숲과 더불어 용기를 내라.
그대들 혼자 즐기던 것을
다른 이들도 즐기게 하라.
그러면 아무도 나무라지 않으리라
혼자서만 즐길 기회를 차지한다고.
이제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그대들은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노래와 어법으로
우리는 다시 하피스 곁에 있다.
하루의 완성을 즐기는 자들과
더불어 즐거움이 당연하기에.¹³⁾

13)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음 『서동시집』 26~27쪽